

## 시험 후 검토 기간에는 체험 학습을 신청할 수 없나요?

중2아들의 기말시험이 끝나는 날 가족 여행을 갈 계획이라 체험 학습 신청서를 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시험 후 검토 기간에는 가급적 학교에 빠지지 말라고 당부했다는 말을 듣고 취소했네요. 원래 규정상 안 되는지 궁금하고, 만일 꼭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답지 검토는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어요.

\_정성희(44·경기도 수원시 인계동)

## 학업 성적 관리 규정상 시험 기간이 아니라면 체험 학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학업 성적 관리 규정에 '시험 기간에 체험 학습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험 기간 이후 성적 처리 기간의 체험 학습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경기 조원중 허수진 교사는 "학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우리 학교는 시험이 끝난 후 성적 확인 기간에 체험 학습 신청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규정에 없다. 시험 기간만 아니면 대부분 허가해주는 편이다. 만일 성적 확인 기간에 학교를 빠질 경우 담임 교사가 서술형 답안을 사진으로 찍어서 학생에게 확인한다"고 설명합니다.

대구 성산중 최시강 교사는 "정해진 기간 내에 성적 처리를 오류 없이 마감해야 하므로 학생의 개별적인 체험 학습은 시험 후 2주간은 가급적 피하도록 권하고 있다. 하지만 의무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체험 학습도 학생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교육 활동인 만큼 미리 담임 교사와 상의해서 성적 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고 다녀올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된다는 게 전문가들이 공통된 조언입니다. @

### MORE TIP

다음은 서울 한 중학교의 학업 성적 관리 규정 중 교외 체험 학습에 관한 내용이니 참고하세요.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교외 체험 학습은 출석으로 처리한다.

국내: 연속 5일 이내(휴무 토요일, 공휴일 제외)

국외: 연속 10일 이내(휴무 토요일, 공휴일 제외)

\*유의 사항: 교장이 허가한 기간을 초과하면 초과한 기간은 미인정결석으로 처리.

정기교사기간에는 허가하지 않음. 국내의 체험 학습 신청 일수는 연간 20일 이내로 제한.

취재 배경은 리포터 bibibibi22@naeil.com

## 수능 <국어> 표준점수를 어떻게 산출하는지 궁금해요.

이번 6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험에서 <화법과 작문> 선택자보다 <언어와 매체> 선택자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고3인 아이는 두 과목 중 특별한 선호가 없어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학생 수가 많은 <화법과 작문>이 나올 것 같아 선택했는데 수능 때도 표준점수에서 불리할지 걱정이네요. 어떻게 점수를 산출하는지 궁금합니다.

\_ 서민정 (가명·50·서울 양천구 목동)

### 선택 과목과 공통 과목 각각의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배점 비율을 모두 반영해 점수를 산출합니다.

선택 과목을 포함한 수능 영역의 경우 표준점수를 도입합니다. 원점수로는 과목 간 난도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응시자 수가 많고 응시자들의 표준편차가 큰 <생명과학I> <지구과학I>을 선택한 경우, <물리I> <화학I> 응시생에 비해 상위권이 표준점수를 받기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택법은 2022학년도 수능에서 공통 과목+선택 과목 구조로 실시하는 국어, 수학의 경우 달라집니다. 과목 내 공통 과목 점수를 활용해 선택 과목 점수를 조정 후 최종 점수를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즉, 두 학생이 <언어와 매체>와 <화법과 작문>을 선택해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을 각각 60점, 17점 같은 점수를 받아도 최종 표준점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집단의 각각 선택 과목과 공통 과목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배점 비율을 모두 반영한 점수를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방식은 오른쪽 표와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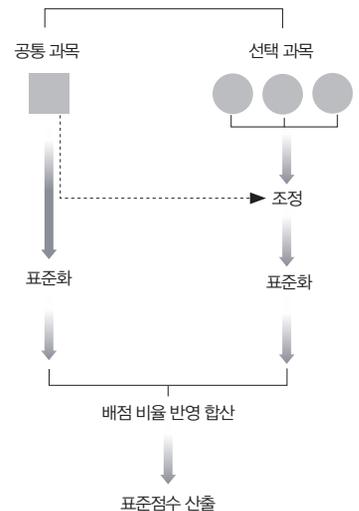
이 방식을 적용하면 서로 다른 선택 과목의 점수를 비교할 수 있고 선택 과목에 따른 유리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게 평가원의 설명입니다.

종로학원하늘교육 오종운 평가이사는 “중위권의 <화법과 작문> 정답률이 잘 나오는 편이다. 따라서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중위권 학생이 <화법과 작문>으로 과목을 변경한다면 선택 과목인 <화법과 작문>에서 2~3점 더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최종 표준점수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집단의 공통 과목 점수 평균도 높아져야 한다. 유불리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힘들다”고 설명합니다. @

#### MORE TIP

공통 과목 점수를 활용한 선택 과목 점수 조정 방식을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탑재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렇게 준비하세요' PDF파일을 내려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취득한 점수를 조정, 표준화한 식뿐만 아니라 배점 비율에 따른 반영 합산을 거쳐 최종 표준점수 산출 방법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취재 김민정 리포터 mjkim@naeil.com



<내일교육> 편집팀이 매주 독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초·중·고 자녀를 둘러싼 학습·입시·진로·생활 등 질문의 폭을 다양화합니다. 속시원히 털어놓으세요. 이메일(ajjung@naeil.com)로 질문과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_편집자